

전남, 전국동계체전 바이애슬론 금메달 7개 중 6개 수확

티모페이 랍신 전종목 석권 '4관왕'·에카테리나 압바쿠모바 3관왕 차지

전남 바이애슬론팀이 전국동계체전에서 금메달 7개 중 6개를 가져왔다. 전남도체육회는 바이애슬론팀이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전경기에서 금메달 6개를 수확했다고 1월31일 밝혔다. 전남 바이애슬론팀 함해영·에카테리나 압바쿠모바·알렉산더 스타로두비치·티모페이 랍신은 지난 1월28일 열린 혼성경기에서 1시간 14분 49초의 기록으로 첫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1월29일과 30일에 열린 남·녀 스피리트

경기와 집단출발경기에서 티모페이 랍신과 에카테리나 압바쿠모바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3관왕을 달성했다. 이날 열린 남자일반부 계주(22.5km)에서 티모페이 랍신, 알렉산더 스타로두비치, 김철영이 출전해 1시간 3분 33초07로 금메달을 가져왔다. 또 여자일반부 계주(18km)에 에카테리나 압바쿠모바, 함해영, 염혜진이 나서 1시간 1분 44초 03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번대회에서 티모페이 랍신은 전종목을 석

권하며 4관왕, 에카테리나 압바쿠모바는 3관왕을 차지했다. 최기동 전남도체육회장 직무대행은 "동계체육 불모지인 전남에서 바이애슬론 메달 7개 중 6개를 가져왔다"며 "104회 전국동계체전 본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밝혔다. 제104회 전국동계체전은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경북, 울산 등에서 펼쳐진다.

뉴스



템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오른쪽).

올 시즌 뒤 FA 맞는 최지만·오타니 트레이드 시장서 주목...美 ESPN

피츠버그, 최지만 보내고 유망주 찾을 듯 LAA, 오타니 내보내 보상 원할 가능성

메이저리그(MLB) 최지만(31·피츠버그 파이리츠)과 오타니 쇼헤이(28·LA 에인절스)가 트레이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1월31일(한국시간) ESPN은 MLB 2023시즌 뒤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는 최지만과 오타니 쇼헤이의 트레이드 가능성을 전망했다. 최지만이 선발투수 리치 힐(42), 1루수 카를로스 산타나(36), 중간계투 야를린 가르시아(30) 등 베테랑 선수와 함께 트레이드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피츠버그가 이 같은 트레이드를 통해 유망주를 발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피츠버그에서 트레이드될 것으로 유력한 선수는 브라이언 레이놀즈(28)로 분석됐다. 그는 피츠버그에서 시즌 개막을 맞았지만, 트레이드

드 마감이 다가오면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타니는 LA 에인절스가 포스트 시즌을 바랄 수 있는 성적에 아니라면 트레이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했다. 오타니가 소속 팀에 계속 남을 것으로 보는 사람은 드물다고 덧붙였다. 트레이드 마감까지 아직 6개월이 남은 가운데 오타니를 시즌 종료 전 트레이드로 보낼 가능성도 제기됐다. 에인절스는 오타니를 포스트 시즌에 전력 강화가 필요한 구단에 일찍 보내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에인절스는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투수진 텅스(선수층)에 투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최지만은 소속 팀과 연봉 조정을 두고 구단과 갈등을 빚고 있다. 오타니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LA 다저스 등 명문 구단으로부터 일찍이 FA를 두고 관심을 받아왔다.

뉴스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4일 경기 이전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 개시식에 참석해 선수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 개최...항저우 정조준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2023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을 갖고, 항저우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 기대에 돌입한다. 1일 이전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리는 이번 개시식에는 동·하계 선수와 경기 임원 100여 명을 비롯해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정진원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항저우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는 당초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1년 미뤄져 오는 10월22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항저우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는 7월 초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선수들은 30여일간의 특별훈련과 종목별 국외 전지 훈련을 거쳐 대회에 참가한다.

뉴스

여수시청 육상 김은미, 전국크로스컨트리 금메달

여자 개인부 8km 29분 42초 기록 1위로 결승선 통과

여수시청 육상 김은미가 전국크로스컨트리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여수시청 김은미가 제주 서귀포시 강창학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7회 한국실업육상연맹 전국크로스컨트리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31일 밝혔다. 김은미는 이번 대회 여자 개인부 8km에 출전해 29분 42초의 기록으로 2위 정현지(논산시청·30분 21초), 3위 김유진(경산시청·30분 28초)을 제치고 1위로 결승선을 통

과했다. 또 남자부 개인 출전한 박대성은 26분 38초로 3위 박종학(한국전력)에 1초 뒤진 4위를 기록해 다음대회 메달 가능성을 열었다. 김재성 여수시청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오는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도 메달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고향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도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현근기자



'7년 만의 재회'...서건창·김민성 부활 기다리는 염경엽

2013~2016 염 감독 넥센 사령탑 시절 전성기...올 시즌 LG에서 감독과 선수로 재회



염경엽 LG 트윈스 감독. (사진=LG 제공)

부활을 넘어, 그 이상을 바란다. LG 트윈스 염경엽 감독이 7년 만에 재회한 서건창·김민성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염 감독은 지난 1월27일 스프링캠프를 위해 출국하면서 "서건창과 김민성을 예전 모습에 얼마나 가깝게 살려내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들이 더그아웃 리더가 돼야 한다"고 이번 시즌

포인트를 짚었다. 누구보다 서건창과 김민성을 잘 알기에 거는 기대다. 염 감독은 2013~2016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사령탑을 지내며 이들과 함께했다. 서건창과 김민성의 전성기도 이 때다. 서건창은 2014년 201안타를 날려 KBO리그 한 시즌 최다 안타 신기록을 작성하고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로 우뚝 섰다. 김민성은 염 감독 부임 첫 시즌이던 2013년 데뷔 7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15개)을 날리고, 2015년 첫 3할 타율을 달성하는 등 거듭 성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활약은 지속되지 않았다. 하락세를 타던 김민성은 2019시즌을 앞두고 사인 앤드 트레이드로 LG에 합류했고, 2년 뒤에는 서건창이 줄무늬 유니폼을 입었다. LG에서도 이들의 입지는 계속 좁아졌다. 서건창은 지난해 77경기서 타율 0.224, 2홈런 18타점 39도루에 그쳤다. 최근 2년 연속 프리에이전트(FA) 권리 행사를 미루기도 했다. 김민성은 92경기 타율 0.207, 3홈런 20타점으로 부진했다.

그러나 염 감독은 이들이 보다 큰 역할을 맡아줄 바라고 있다. 시즌 구상에도 서건창과 김민성이 빠지지 않는다. 염 감독은 취약 포지션으로 꼽히는 2루에 대해 "서건창과 김민성이 있다. 두 선수를 잘 활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민성은 1루와 3루까지 두루 책임질 수 있다. "공격에서도 살아남 거라고 본다"며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염 감독은 "서건창과 김민성의 장점과 단점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단순히 서건창·김민성의 재기만이 목적은 아니다. 이들을 통해 더그아웃의 분위기를 더 끌어올려 팀 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오지환·김현수와 함께 서건창·김민성을 '더그아웃 리더'로 지목한 염 감독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실력이 갖춰져야 한다. 고참들이 야구를 잘하고, 분위기를 잘 형성해 주면 팀도 잘 돌아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영광의 시절을 꿈꾸는 서건창과 김민성은 지난달 30일 미국 애리조나로 떠나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들어갔다.

골키퍼 신화용, U-15팀 코치로 5년만에 수원 복귀

프로통산 419경기 뒀던 레전드 수문장

은퇴 후 지도자로 변신한 신화용(40) 골키퍼가 5년 만에 프로축구 K리그1 수원 삼성으로 돌아왔다. 수원 구단은 1일 "신화용 코치가 수원 유스 15세 이하(U-15) 팀의 골키퍼 코치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소년 총괄 골키퍼 코치로서 프로 골키퍼가 되기 위해 연령별로 필요한 체계적인 트레이닝 기법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화용 코치는 K리그 통산 337경기, 프로 통산 419경기를 뒀던 레전드 골키퍼 출신이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포항 스틸러스에서 뛰다가 2017년부터 수원에서 두 시즌간 활약했다. 2021년 수원과 포항에서 공식 은퇴식을 진행한 신 코치는 지난해 K리그2 안산 그리너스 골키퍼 코치로 활동한 뒤 수원으로 복귀했다.



신화용 수원 U-15팀 골키퍼 코치(가운데)

신 코치는 "현역 시절부터 어린 선수들을 키워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수원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의미가 더 각별한 것 같다"며 "정상빈(그라스호퍼), 오현규(셀틱) 등 최근 메탄소년단(수원 삼성 유스팀) 메탄고 출신 선수들이 화제인데, 골키퍼에서도 메탄소년단을 이을 선수들을 배출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신 코치는 이날 U-15팀이 전지훈련 중인 경남 창원 캠프에 합류했다.

KBL, 캐롯 전성현 '76경기 연속 3점슛 성공 기록상'

KBL이 76경기 연속 3점슛 성공 기록을 달성한 프로농구 고양 캐롯의 슈터 전성현에게 기록상을 시상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성현은 2021년 11월18일 전주 KCC전부터 올해 1월27일 수원 KT와 경기까지 76경기 연속 3점슛 1회 이상을 성공했다. 해당 부문에서 KBL 역대 최다 기록이며, 종전 기록은 조성원 전 창원 LG 감독(64경기)이다. KBL은 2일 캐롯과 안양 KGC인삼공사의 경기에서 시상식을 진행한다. 전성현에게 기념 트로피와 100만원 상금을 수여한다.

